墓라 하였습니다. 구는 스스로 높다는 말이고 묘는 그게 평평하다는 소린데 혼합해서 말하면 구묘丘墓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구묘란 결국 어덕에 쓴 평평한 무덤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진秦나라 이전에는 '장이무분자위묘葬而無墳者爲墓', 장사하되 봉분이 없는 것을 묘라 하고, '한즉분묘통칭漢則墳墓通稱', 즉 '한나라에 와서 분묘를 무덤으로 통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은殷나라 폭군 주왕紂王의 충신 비간比干의 묘에 처음으로 봉분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옛적에는 묘가 없고 봉분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옛적에는 표소를 수치修治하지 아니하여 묘라 하면 그저 광혈壙穴, 즉 무덤구덩이를 메운 평장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묘라는 것은 시신이 광중에 묻히고 흙을 메워 평평하게 한 부분까지이고 분은 거기에 묏봉을 쌓아 높인 부분까지를 일컫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공자가 그 어머니를 장사해야겠는데 일찍 돌아간 아버지의 묘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무덤에 봉분이 없어 그 아버지가 평장되어 있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공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해 상행을 성밖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네거리에 멈추어 놓고 오래 호곡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옛적에 돌아간 아버지의 무덤 곁에 장사해야겠는데 그 묘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혹인이 나타나 그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의 묘소를 알려주었는데 이때 공자가 아버지 묘를 찾지 못했던 것은 당시 묘에 봉분이 없고 모두 평장이 되어 눈으로 보아 이를 어림할 수 없었던 때문이라 합니다. 이에 공자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장사한 후 다시는 부모의 묘소를 못찾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석 자 높이의 봉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무덤에 봉분이 생겼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풍수설은 그 내용이 장황한 설명을 요하고 간단치가 않아 여기에서 거론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묘제에서 지극히 꺼려온 오재五災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이의 집이라 해서 유택幽宅이라고도 하고 또 음택陰宅이라 해서 생시에 사는 집 양택陽宅과 구분하는 묘소에 미치는 다섯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 하나는 묘소에 물이 나서 광중壙中에 고이거나 수침水浸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재 중에서 아마 이것이 으뜸의 흉재凶災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는 목재木災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뻗어들어가 시신을 휘감는 것입니다. 나무뿌리는 관곽棺槨도 뚫고 들어가므로 이를 막고자 회광恢廣과 격회隔恢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충재蟲災입니다. 광중에 벌레가 나서 시신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재獸災입니다. 산짐승이나 들짐승인 야수野獸가 무덤을 굴파고 들어가 시신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는 재앙이니 이 또한 끔찍한 것입니다. 특히 상한 고기를 좋아하는 여우가 이런 짓을 많이 하여 옛사람들이 질색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화재火災입니다. 산불이 나서 묘소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묘소 주변에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송추松楸라 별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나무와 잔디가 불타는 재변입니다. 옛적 선대 묘소에 불이 나면 이를 끄려다 타죽는 효자도 있었고 화재 후에는 자손들이 짚풀 따위를 썰어다 봉분과 계절을 덮어 가리고 위안제慰安祭를 지냈습니다. 이상의 오재는 우리의 묘제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해 드려야겠군요.

우선 납골묘와 수목장은 우리의 전통 장묘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납골묘와 납골당은 같은 개념입니다. 묘소를 쓴 뒤에도 그 표면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재앙이라 하였으니 그 시신을 태워 재를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가 불교국이었지만 승려를 제외하고 일반 신도까지 다비茶毗라는 화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불교가 우습雨濕한 인도에서 발원하였고 그곳 사람들이 죽은 자가 물텀벙이에서 부패하는 것을 기휘하여 시체를 화장하면서 불을 재생再生의 정화淨化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볕의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발원하여 사자에 대한 화장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힌두불교 쪽만이 화장을 하였는데, 우리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온대지방에서 살아 분묘를 경개에 따라 좋게 꾸며 치수治修하는 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화장 자체가 우리의 제도가 아니니 납골묘는 더 거론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은 사실상 불능인 한계에 와 있고 국가의 실정법이 이를 엄연히 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실정법상으로 매장이 오히려 불법이고 화장이 합법으로 되었음을 뜻합니다. 화장이 합법이니 그 화장한 유해, 즉 골분骨粉을 안치할 납골묘나 납골당도 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한 골회骨恢를 하천이나 강물에 뿌리는 것이 사실은 불법이고 산에 갖다 뿌리는 산골散骨 행위도 실은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골묘든 납골당이든 만들어서 이를테면 광혈壙穴을 지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의 제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동남아 불교국 등에서 정착된 제도이고 일본의 경우는 집의 앞뒷마당에도 이를 설치하기 예사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일반 백성의 화장제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이고 일인 통치자들에 의해서였지만 지금 화장을 일제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장을 했으면 그 유해가 한 줌밖에 안되는 부피이니 작은 용기에나마 담아서 선산발치 같은 지하에 묻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네 묘제로는 유해나 광혈을 지상에 노출시키는 예가 없고 또 요즘 납골묘가, 이를 방치하면 이윽고 흉물로 남는다는 소리도 있으니 말입니다. 무덤은 돌보지 않으면 산림으로 돌아가지만 납골당은 반영구적 흉물이 될 뿐만 아니라 궂은 날 냄새까지 풍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에 앞을 다투게 되었으니 오재 가운데 화재는 모두가 숙명적으로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 문제가 또 튀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또하나 난데없는 벼락인 샘이군요. 오재 가운데 목재를 연상해 보면 말입니다. 수목장은 산골散骨을 변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부조의 유골을 나무에게 거름삼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꺼림직하군요. 마음같으면 유해단지를 모름지기 선대 묘역하 어디에 조용히 묻고 아주 작은 표석 하나라도 세우면 땅을 채 한 평도 쓰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5재 중에서 화재 하나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목재가 가중되는 바는 안 될 것이기도 하고요. ——— 弼雲齋

능동칼럼

가을 예찬

權 海 兆
편집위원

추분이 지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서늘하며 가을이 깊어간다. 한 해의 4계절에 각기 특색이 있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가을을 가장 좋아했다. 가을은 천문학상으로 추분과 동지 사이라고 한다. 금년의 절기로는 입추立秋인 8월 7일 경부터 입동立冬 11월 7일까지이다. 통상 북반구에서는 가을을 9월과 11월 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을을 나뭇잎이 지는 fall낙엽에, 곡물 등이 익는 autumn성숙기, 수확을 하는 harvest추수기로 부르고도 있다.

옛적부터 가을은 하늘이 맑고 먹을 것이 풍부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예찬했다. 수확의 계절, 남자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축제의 계절, 여행의 계절 등으로도 기려 부르는 이칭이 많다. 가이없이 파랗게 높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고 교외 신작로 가에는 각색의 곱게 핀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자태로 하늘거린다. 들판에는 오곡이 황금빛으로 무르익고 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며 마을의 집 뜨락에는 국화 향기가 그윽한,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아침 이슬이 서린 낙엽을 밟으며 추억과 그리움에 젖어보는 것도 가을의 운치이다.

지금도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이 많다. 그 첫번째는 시골 초등교 시절의 가을 풍경과 운동회이다. 마을에서 학교까지 들판길을 십여리 걸어다니며 고추잠자리、메뚜기 등을 잡던 일, 밀짚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허수아비가 논밭의 곡식을 지키던 모습이 선하다. 당시의 학교 운동회는 학교만이 아닌 면민面民과 지역사회의 축제였다. 운동회는 통상 추석 후에서 추수 전에 열렸다. 파란 하늘 아래 너른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펄럭이고 운동장 가에는 노란 키다리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 학생들은 청백 팀으로 나뉘어 여러 대항 경기를 하고 학부모인 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부락 대항 경기를 벌이며 목이 터져라 응원과 환호를 보냈던 어린날의 추억이 아련하다.

두번째는 중학 시절의 가을 수학여행이다. 수학여행은 대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떠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한번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11월 초에 같은 합천군내에 있는 가야산의 해인사로 갔었다. 곱게 물든 홍류동 계곡과 해인사 주위의 가을 정경이 지금껏 잊히지 않는다. 그때 곱게 물든 노랑、빨강 단풍잎을 몇 개 골라 따서 책갈피에 넣어 오래 보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세번째 추억은 젊은 시절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할 때 강원도 철원의 대성산 아래 남대천 김화평야에 펼쳐지던 가을 정경이다. 안개가 자욱한 지경리에서 비포장이던 43번국도를 타고 47번국도가 시작되는 와수리까지 아침 구보를 하거나 군용차를 타고 달릴 때 뭉클했던 가을 냄새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도로 가에 양쪽으로 곱게 핀 코스모스의 하늘거리는 자태와 들판의 논에 아침 이슬을 머금은 황금빛 벼이삭의 평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익은 콩밭에 탐스런 수수목이 고개를 주렁주렁 숙이고 있다. 뉘엿거리던 석양이 지고 어스름이 깔릴 때면 마을에서 장작과 낙엽 나무로 밥을 짓느라 피우는 하얀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며 이내와 함께 퍼지는 모양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전방 시골의 정취를 연출했었다. 혹은 궂은 가을비가 내리는 밤에 영외의 외딴 집 하숙방에서 초급장교 시절의 스산함과 외로움을 탔던 추억도 잊히지가 않는다.

나는 가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면서 또한 따스한 햇살조차 맑은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사람의 활동을 더욱 윤활케 한다. 특히나 가을에 산에 오르면 마음도 평활하고 기분이 썩 상쾌해진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하며 각박하게 재촉하지 않아서 좋다.

한번 추억에 잠기면서 옛적의 가을 냄새를 되짚어 맡아보고 이를 예찬해 본다. 어느덧 주갑을 넘긴 것이 엊그제로 되고 보면 소시의 추억이 참으로 까마득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가을에는 예년에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좀더 책을 읽고 글도 써보고, 낙엽을 밟으며 오솔길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도 보고 진정한 가을의 맛을 실컷 음미해보고 싶다. 그리고 선대의 세사철을 당해 조상께 감사하고 일가친척과 족친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싶다.

격려에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창화공종회昌和公宗會(회장 권병선權炳善)에서 5만원을, 10월 27일 목사공종회牧使公宗會(회장 권준식權俊植)에서 6만원을, 11월 22일 남강공종회南岡公宗會(회장 권진택權晉澤)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